

평양을 다녀온 후 마음 속에는...

2010. 3. 24.~27.

철저한 반공교육 세대인 나는 모든 분야의 대북지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평양검진·검사센터의 검사실 조성 사업에 부족한 힘이나마 조력하기로 마음을 굳힌 만큼, 장비 선정과 공간 운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과 사진을 바탕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인 구상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북한의 검사실 현황 확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008년 말부터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한번 정도는 방북해서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권유도 있었던 터였지만, 곧 있을 서울성모병원의 개원에 따른 업무들로 인하여 2010년 3월에서야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다.

3월 24일 오전 8:30분 인천공항.

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가톨릭의료협회장이신 이동익 신부님을 비롯하여 나눔인터내셔널 이윤상 대표 등 여덟 분의 방문단 일행과 함께 중국 심양을 거쳐 평양 순안공항으로 가는 방북 길에 올랐다. 경유지인 심양에서 고려항공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 수속을 밟을 때, 입국심사를 하는 사람들의 무표정하고 고압적인 태도(나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에 불쾌감이 들어 같은 땅 덩어리에 사는 민족, 같은 말을 사용하는 동포를 만나기 위해 육로나 직항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제3국을 거쳐가야 한다는 현실에 착잡한 마음이 스며들었다.

지루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게 되었는데 투폴레프라는 러시아제 비행기로 모델은 잘 모르겠으나 보잉사의 707 기종 정도 되는 듯 해 보였고 내부장식은 허름하고 이차륙시 좌석은 앞뒤로 흔들렸으며 내가 앉은 좌석 뒤로는 좌석이 없고 화물을 천정까지 적재한 상태였다. 승객들의 차림새나 분위기가 대부분은 해외동포 또는 북한의 무역업 종사자이거나 외국 출장이 가능한 간부들로 보였다.

이륙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조·중 국경인 압록강 상공을 통과 중이며, 2시간쯤 되어 평양의 순안 공항에 곧 착륙할 예정이라는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 창 밖을 내려다 보니 별거벗은 산이 온통 황토색의 붉은 물감을 칠해 놓은 듯, 과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평양 순안공항에는 두 분의 민족화해협의회 참사가 마중 나와있어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입국심사를 하였는데 같은 말을 사용해서 그런지 중국의 심양보다는 한결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수속을 마친 후 핸드폰을 공항에 맡긴 일행들이 합류하여 소형 버스를 이용해 평양 시내로 이동하였다. 처음 공항을 출발해서 얼마간의 시간



심양보 알베르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팀장





동안 차창 밖 풍경은 군데군데 연립주택형과 아파트형 가옥이 모여있는 마을과 아주 가끔 단독형 주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의 시골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듯 하였다.

아직 초록의 새싹들이 돋지 않는 계절이라서 그런지 하늘에서 내려다 본 것과 같이 땅은 온통 황토색이고 상록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으며 과수원 같아 보이는 곳이 여러 군데 보였으나 사람이나 자동차의 왕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풍경의 연속을 한참 지나서야 (40~50분 정도로 느껴짐) 평양 시내에 접어들었는데, 그때서야 실제 북한에 와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붉은색 글씨로 구호가 새겨진 석물과 건물마다 붙어 있는 붉은색 구호 문구들에 왠지 모르게 애련한 생각이 들었다.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을 방문한 우리 일행은 양각도 국제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양각도는 대동강폭 중간에 형성된 섬으로, 양각도 국제호텔은 이 섬에 세워진 호텔로 주변 경관이 무척 좋았다

예전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평양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려 호텔에 우리측의 방문객이 투숙 하기도 하였으며 우리측 전세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들어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이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가 주최하는 저녁 만찬이 있었다. 화학 조미료나 인공 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나 맛이 있었으며, 소주의 알코올 농도는 30%로 남측의 20% 이하의 소주에 길들여진 나는 몇 잔 마시지 않아도 취기가 오를 정도였다. 밤새 모래 채취선의 작업으로 인

한 소음으로 잠을 설쳤으며 이 상황은 3일 간의 방북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25일 만경대 김일성 고향집 방문을 시작으로 2일째 공식 방문 일정이 시작되었다.

만경대 김일성 고향집은 완전히 성역화된 듯 보였고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학생, 민간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체 또는 약간의 무리를 지어 관람하고 있었으며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방문객 수는 1억 2,000만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북한 주민 전체가 1인당 4번 정도는 방문하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일행 중 한 분의 말씀에 아마도 북측의 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라 생각되었다.

만경대 김일성 고향집을 뒤로 하고 나눔인터내셔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지원사업으로 내분비연구소 옆에 건립한 평양의료협력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센터에 설치하기 위해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지원한 의료장비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나눔인터내셔널에서 지원한 기타 장비를 조립하고 점검·수리하는 북측의 기술진을 만나보았다. 김책공업종합대학(金策工業綜合大學, 김책공대)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분들이라는 소개를 듣고서 이분들의 실력은 장비를 분해하고 점검하며 폐기되는 장비의 부품을 재활용하여 장비를 수리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느 정도의 응용과 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습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곳을 둘러 보고 특이했던 점은 평양의료협력센터 건물 옆의 조그마한 온실에서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채소와 화초 몇 종류들이 자라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들은 약초로서의 연구 대상으로 재배하는 것 같았다. 또 다른 건물에는 식품을 가공하거나 고려약을 제조하여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 있었으며 이 시설도 나눔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들었다.

평양의료협력센터 방문 후 바로 옆에 있는 내분비연구소(북한의 의료체계에서 4차 병원에 속한다고 함)를 방문하였는데 내부로 들어가자 진료 대기중인 환자들로 보이는 몇몇의 북한 주민들이 있었다. 나는 주 관심대상인 접

사실을 둘러 보았는데 전해들은 상황보다 더 열악한 검사실 환경과 장비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검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과 동시에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공간 구조도 비효율적이었지만 남측에서 지원해 준 생화학분석장비와 혈액분석장비는 개인의원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었으며 현미경도 초등학교 과학실험실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의 모델이었고, 기타 기본 장비는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었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CT실을 둘러 본 후 신축 중인 평양검진·검사센터를 둘러보았는데 3층 건물로 골격 구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외장 및 내장 마무리공사는 우리 정부측에서 건축자재의 반출을 허락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검사실이 들어서게 될 2층의 구조를 살펴보고 건물의 옥상까지 천천히 둘러보았다. 북측 내분비병원의 근무자들이 스스로 공사에 참여하여 이 건물을 세웠다고 들었던 터라 웬지 모르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분비병원 검사실 근무자는 검사의 질 관리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검사실 질 향상에 대단히 의욕이 높다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러한 북측 관계자들의 열의가 평양검진·검사센터 운영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었다. 간단한 대화를 마무리하고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잠시 검사센터 지원방향 및 운영 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장비구성, 검체이송수단, 인력운용, 소모품 공급 방법 등).

옥류관에서 평양 냉면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음 방문지인 조선적십자종합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는 비뇨기과병원의 투석실과 수술실, CT실, 정형외과병원의 수술실 및 CT실을 살펴보았는데 이곳 역시 나눔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한 상태였으며, 수술실에는 수술대와 무영등 그리고 낡은 인공심폐기를 제외하고 별 다른 장비들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이 늦은 시간이 아님에도 단 1명의 환자들도 없다는 점이 다소 이상하였으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곳에서 검사실을 살펴 볼 기회가 없었



던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금성학원을 방문하였다. 먼저 방북했던 분들께 익히 들어서 금성학원의 성격(금성학원은 예술부분의 영재교육 초·중·고 과정)과 학생들의 재능에 대해서는 막연하나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명불허전(名不虛傳) 이라 했던가 학생들의 공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어린 학생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 아이의 손이 너무 차가웠음에 놀랐고, 몸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도 입가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음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은 순간, 우리가 방문한 3월 말경은 북측의 학기로 보면 방학기간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우리 방문단 일행을 위해 방학 중에도 나와 저렇게 자기들의 일상을 보여주느라 열심인데 과연 저 모습이 이 어린 학생들의 본 모습일까? 그리고



무대에서 저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저 깜찍한 어린 아이들은 과연 재능만으로 저게 가능할까? 나이 어린 학생들이 저렇게 자기의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노력 했을까? 지금 이 학생들이 제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이 학생들의 꿈이 이 길일까? 이 아이들은 정말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일까? 하는 반문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복잡한 심정이였다.

관람을 하는 우리 조차 내의에 겨울용 점퍼를 입었는데도 추위가 가시지 않는데 얇은 무대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한 어린 학생들은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안쓰러움에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것이 뱃속 저 밑에서 치밀어 오르는 듯 했다. 그렇게 안타까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마음을 뒤로한 채 숙소로 돌아왔다.

26일 아침 식사 후 방문단 일행은 북측의 안내로 서해 갑문을 보기 위해 남포를 방문하였는데 차창 밖의 풍경은

황량하기만 하였으나 이 풍경 또한 이른 봄의 우리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남포시에 접어들었을 때 부터 거리의 풍경과 주민들의 모습은 평양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서해 갑문의 특성은 3개의 갑문이 있어 각각의 크기에 따라 1,000톤에서 최대 50,000톤의 배가 갑문을 통해 남포항에 입, 출항 할 수 있다는 것과 대동강에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 각종 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남포 서해 갑문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 과한 음주 때문에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27일 서울로 돌아오는 날 아침 식사 때 임교수께서 BBC방송에서 '천안함' 사고에 관한 방송을 보셨다고 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저런 생각에 머리 속이 어지러웠다. 그렇게 일행은 서울로 돌아왔으며 3주가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평양에서의 장면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른다.

북한 땅을 밟아보기 전만해도 국내에도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대복지원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과 대복지원을 해 주고도 항상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솔직한 견해였다. 하지만 3박 4일의 짧은 일정에도 심경에 변화가 일기에는 충분했다. 이동 간에 보여진 황량한 모습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몸소 확인할 수 있었던 낙후된 의료시설과 열악한 의료환경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특히 금성학원에서의 경험,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내 손을 잡고 오들오들 추위에 떨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아직 북한에 대한 막연한 반감과 한민족이라는 동질감이 마음 속에 공존하고 있지만, 위의 일을 떠올린다면 이제는 동질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일지도 모르지만, 거의 60년 간을 분단국으로 지내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투명성이 보장되는 모든 분야에서 적어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